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의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뻘뻘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중략)……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 보따리를 뒤적거리 보지만, 결국은 앞 보따리나 뒤 보따리나 속에 들어 있는 건 매한가지이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것, 그냥 용서해 버리자.’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출처 : 이송원 외, 『고등학교 문학』

[나] “나는 한평생 해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나도 한때는 해에 대해 당신들과 같은 식으로, 그러나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소. 하지만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해를 알려다가 종당엔 이 두 눈만 잃어버리고 말았소. 너무 자주, 오래 해를 쳐다보다가 뜨거운 햇살에 두 눈의 동자가 타 버린 것이요. 그런데 한번 두 눈을 잃자 갑자기 해는 있다는 것조차 의심스런 것이 되고 말았소이다. 그렇소. 정녕 해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어떤 추상일 뿐이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감각이 그때그때 나름대로 받아들인 일시적이고도 자의적인 느낌일 뿐, 그 본질과는 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그럼, 사물의 겉모습이란 결국 뭐란 말이요?”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어렵풋하게나마 그 장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내 하나가 그렇게 물었다. 장님은 더욱 단정적으로 대답했다.

“그 이름에 걸쳐 둔 녀마 같은 것이요. 예를 들어봅시다. 해의 빛깔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아무런 의심 없이 희다 혹은 붉다 따위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정확하지 못한 두 눈이 멋대로 정한 느낌일 뿐이요. 만약 그늘음 낀 수정판과 같은 각막을 가진 짐승이 있다면 태양은 거울 달처럼 새하얗다고 말할 것이며, 연한 자수정 각막을 통해 보면 핏빛처럼 빨갭게 보일 것이요, 잘 간 에메랄드 같은 각막을 지닌 눈에는 보라색이라고 주장될 것이고, 금강석처럼 깎인 각막을 통해 보면 오색이 영롱할 것이요. 또 모르긴 하되, 어떤 생물에게는 그저 막연한 밝음일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생물에게는 빛이 아니라 열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빛깔은 없는 게 되고, 그것은 장님이 된 이 나에게도 마찬가지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해는 빛깔이 없소. 있다면 지난날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받았던 어떤 느낌의 기억이나 말이 가진 추상뿐. 해의 크기나 모양이나 성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소. 우리는 흔히 해는 얼마만 하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 성질은 어떠한다는 둥 말을 하지만 기실 그것은 우리들 오관의 주관적인 단정에 지나지 않소. 만약 위대한 이성이 있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기만적이기도 한 오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모든 존재는 말 특히 이름만이 확실할 뿐인 순수한 추상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요.

나도 실은 시각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소. 그리하여 오관의 감각들마저 이성의 힘으로 봉해 버리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해는 내게 없어져 버린 거요. 있다면 오직 해란 말이 가진 순수한 추상뿐이요.”

출처 : 이문열, 『사람의 아들』

[다] 공정 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 도상국의 생산 작물에 적용된다. 공정 무역 인증서는 최저 임금 지급, 구체적인 안전 요건 준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된다. 공정 무역 인증에는 두 가지 혜택이 따른다. 첫째, 생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 받는다. 가령 원래 1파운드당 1.4달러였던 커피의 시장 가격이 추후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커피 생산자는 1.4달러를 보장 받는다. 둘째,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에 붙는 윤희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는다. 커피 시장 가격이 1.4달러 이상 오르면 생산자들은 파운드당 20센트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 공동체 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공정 무역 인증 마크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로 공정 무역 상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공정 무역 인증 상품의 매출이 69억 달러에 육박했다.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윤희를 얻어 주면서까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 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첫째, 공정 무역 제품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공정 무역 인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농부들에게 더 많은 윤희를 되돌려 주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 무역 제품을 사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 무역 상품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공정 무역 제품이라는 까닭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로 농부들의 수

중에 떨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다. 세계은행 경제 자문관인 피터 그리피스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추가 금액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퍼센트 미만이다.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공정 무역 인증은 인증 받은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이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일하는 공정 무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비공정 무역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 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쯤 되면 공정 무역 제품을 살 까닭이 없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아주 미미한 금액을 보태 줄 따름이다.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

출처 : 고희진 외, 『고등학교 독서』

[문제 2]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라]의 두 관점에서 각각 [마]를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세계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개별 국가나 지역을 넘어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한다.

……(중략)……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곤란하며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해결 방안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 사회의 특성상 개별 국가에 대하여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도 쉽지 않다.

출처 : 서범석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출제진 재구성)

[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지우고 이를 이행할 새로운 방안을 담았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협약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반감을 줄였다.

출처 : 이경호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폭증하면서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왔던 서유럽 4대 주요국(빅 4 :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끼리 노골적으로 반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독일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와 상의 없이 지중해에서 불법 이민자 구조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자금 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 간에 이렇게 날이 잔뜩 선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3. 9. 27.

[라] 국제주의는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 원조의 의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억압이나 폭력, 기아나 빈곤과 같은 문제는 국내 정치·사회 제도의 부정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부정의함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되면 그와 같은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중략)……

세계 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

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의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2011년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와 독재자 카다피의 관저를 맹렬히 공습하였다. 리비아에서는 2월 중순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카다피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살하였다. 국제연합(UN)*은 카다피 정부에 무력 진압과 시민 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시위가 확산하자 시위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연합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결정하였다.

국제연합의 군사 개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248일 만에 카다피의 독재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민간인 학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리비아의 향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국제연합(UN)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 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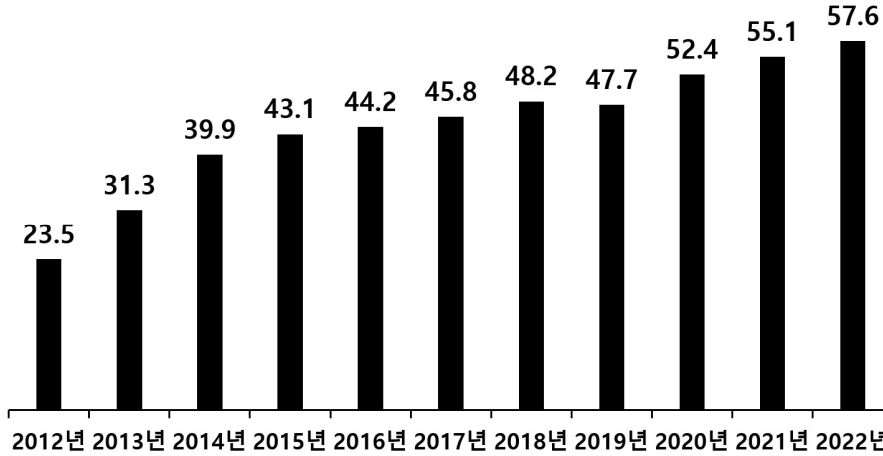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가], [나], [다]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 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SNS(누리소통망) 이용률>

(단위 :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성별, 연령대별 SNS 이용률 비교>

(단위 : %)

항 목	성 별		연 령							
	남성	여성	만 10세 미만	만 10 ~ 19세	만 20 ~ 29세	만 30 ~ 39세	만 40 ~ 49세	만 50 ~ 59세	만 60 ~ 69세	만 70세 이상
이용률	58.4	56.8	7.7	55.3	93.3	88.0	75.2	58.6	29.0	3.8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나] 인맥은 흔히 성공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며,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중략).....

이러한 인맥, 혹은 네트워크의 효과를 잘 설명하는 말로 ‘느슨한 연결(weak ties)의 힘’을 들 수 있다.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강한 연결(strong ties)’ 관계가 아니라 안면 정도 있는 지 인이나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느슨한 연결은 특히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관계 에 있는 사람과는 서로 네트워크가 겹치니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서는 지금의 인맥과는 다른 더 넓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22. 10. 1.

뉴 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화, 상호 작용성, 비동시화 등의 특징을 지닌다.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상호 작용성은 뉴 미디어가 기존의 대중 매체가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증진한 것이다.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나 프로그램을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없었지만, 뉴 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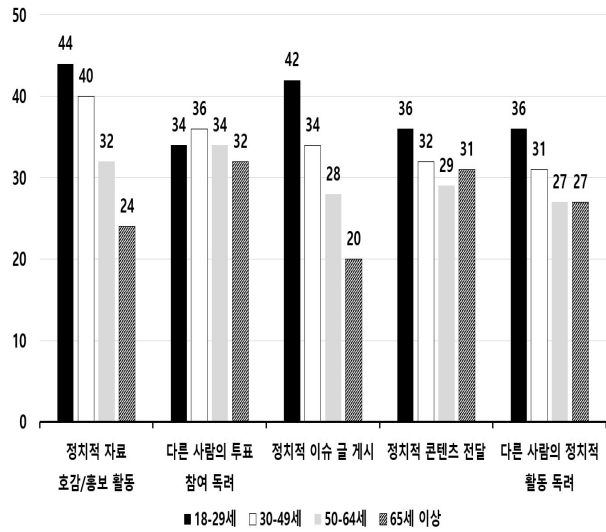
<SNS를 통한 용인특례시의 시민 의견 수렴>



출처 : 『용인특례시 Facebook』, 2023. 2. 24.

<정치 참여 활동에 SNS를 활용하는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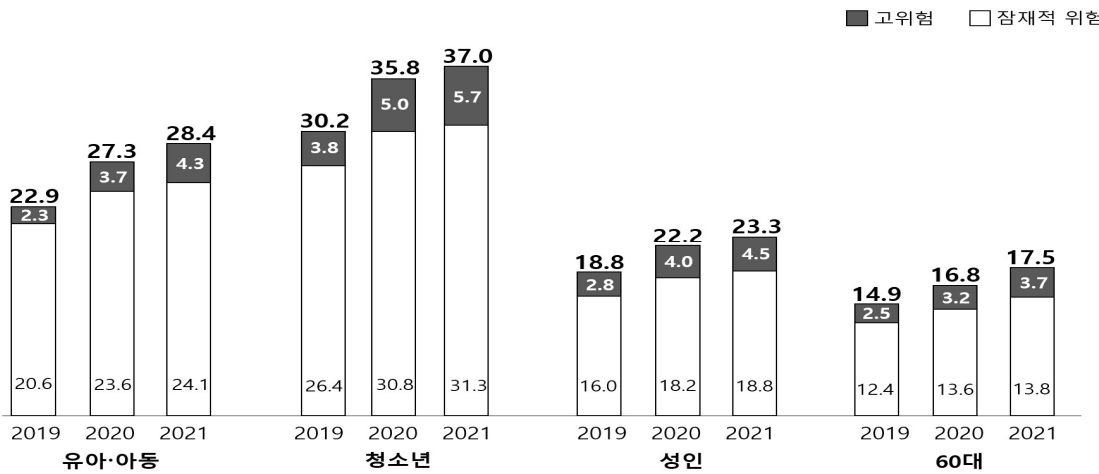


출처 : 『지디넷코리아』, 2012. 11. 4. (출제진 재구성)

[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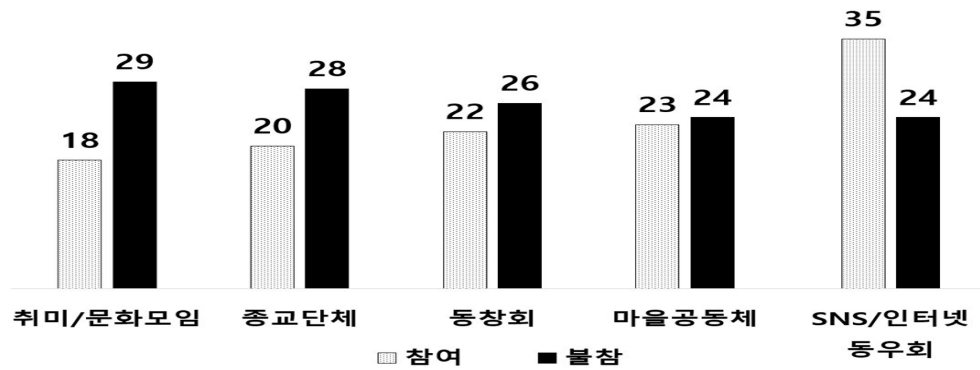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직장인 전모(31) 씨는 한 달 전 가입했던 SNS에서 모두 탈퇴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열심히 관리했지만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였다. 전 씨는 “언젠가부터 남들이 올리는 휴가, 맛집 탐방 등의 사진을 보면 ‘내 삶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들고 스트레스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상 SNS를 접고 나니 출가분하다.”며 “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지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SNS를 떠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기과시성 게시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범람하는 광고, 가짜 뉴스 등에 지쳐 버린 탓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18. 8. 17.

<모임 형태별 외로움 체감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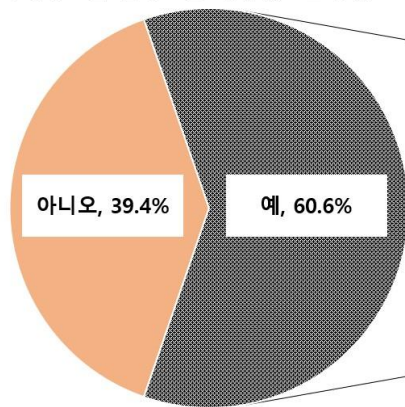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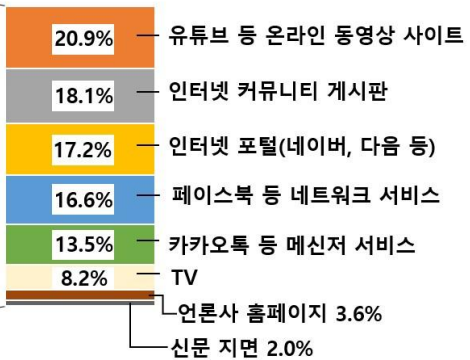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2018

<가짜 뉴스의 주요 출처 조사>

가짜 뉴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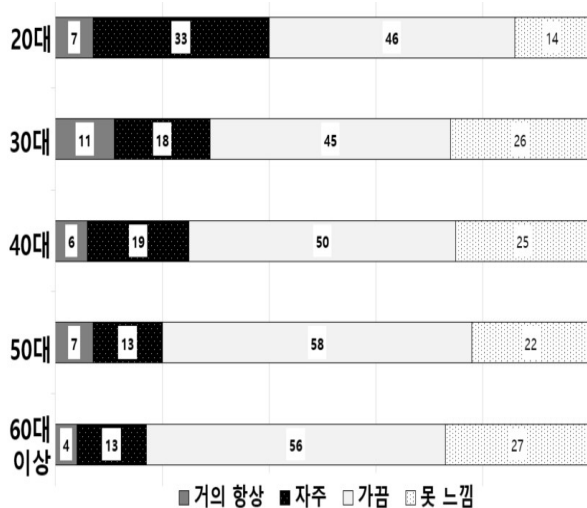
가짜 뉴스를 본 미디어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복수 응답)



출처 : 『경향신문』, 2018. 11. 23.

<얼마나 자주 외로운가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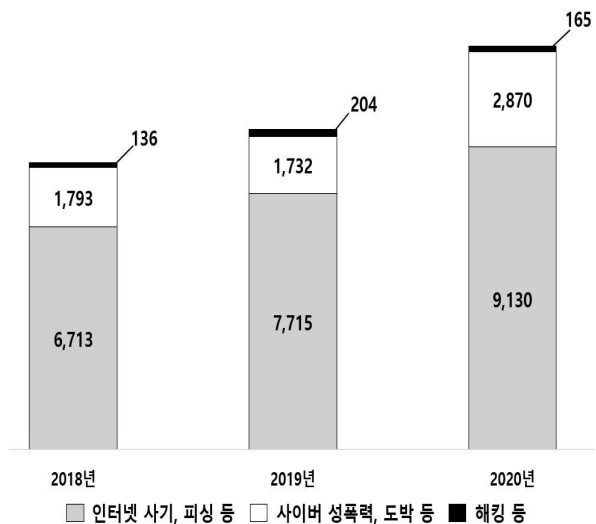


■ 거의 항상 ■ 자주 □ 가끔 □ 못 느낌

출처 : 『한국일보』, 2018. 5. 12.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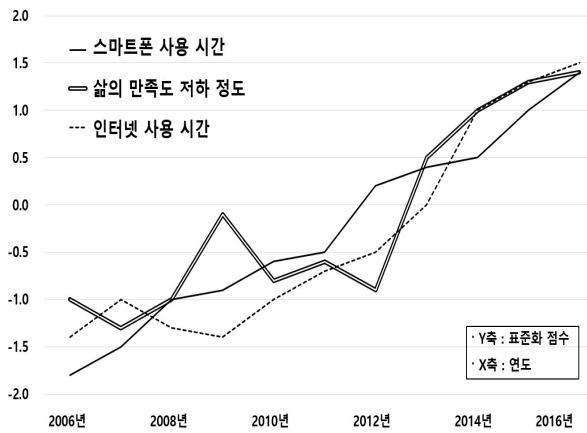


□ 인터넷 사기, 피싱 등 □ 사이버 성폭력, 도박 등 ■ 해킹 등

출처 : 『동아일보』, 2021.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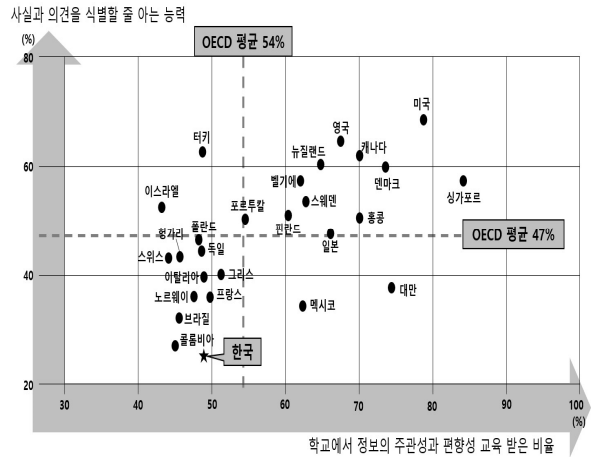
[라]

<스마트폰·인터넷 사용과 미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



출처 : 『아시아경제』, 2019. 7. 17.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출처 : 『한겨레』, 2021. 5. 16.

영국 전체 인구의 14%인 900만 명이 ‘외롭다.’ 이들 중 3분의 2 가량은 자신의 외로움을 말할 곳조차 없다. 2017년 영국 고독 문제 대책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조사는 2016년 극우파 테러로 사망한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의 유지를 받은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생전 자신의 지역구에 ‘외로움 협회’를 만들 정도로 유권자들의 고독·고립 문제에 집중했던 그의 이름을 딴 범정부 위원회를 설립해 13개 시민 단체와 함께 영국의 고독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영국은 이어서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들어 고독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이 외로움부 주도하에 고독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자 책정한 예산은 2,000만 파운드(약 325억 원)에 달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3. 5. 15.

정보 윤리란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의’,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뜻한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낸 신문에 실린 자신의 흑역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구글 검색 결과에 링크된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문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7%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조선일보』, 2016. 9. 28.